

# 션티 선생님께 묻습니다. —

Shean.T

現) 다원교육 고등관 강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  
-한국외대 영어통번역, 통역장교  
-KISS EBS, Masterpiece 모의고사 저자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Shean.T.*



## Hi friends! 션티입니다.

기분 좋게 찬 시월의 날씨가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중든, 싫든, 11월 14일이라는 날짜는 무심하게도 나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떤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더 빨리 공부 정신 차리고 시작할걸. 하, 수능 때 떨어 안 되는데.>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잖아. 난 나를 믿잖아. 00야, 할 수 있다> 이런 견잡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회오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각은, 너무 지나친 절망도, 그렇다고 너무 근거 없는 희망도 아닙니다. 남은 기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푼다.'라는 마음가짐이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들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정해서, 그것으로 한 달을 밀어붙이세요. 또한, 정말 수능 만점자가 아닌 이상, 시험장에서는 분명 내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말리지 말고,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푼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이 올해 노력한만큼,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만큼 제대로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한만큼, 그래서 내 실력만큼 나오는 것만큼 더 값진 결과가 있을까요? 자, once again. 나는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리고 풀 수 있는 걸 풀고 온다. 그래서 내 노력만큼, 실력만큼의 결과를 후.회.없.이 받아낸다. 이 생각으로 남은 기간을, 그리고 수능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막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힘들더라도 마지막 '한 발짝'만 더 내딛으셔서, 후회없는 결과를 마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며,  
션티 드림.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Shean.T.*

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In a movie of long ago, *Sleeper*, the protagonist wakes up from a several-hundred-year sleep ① **understandably** malnourished and **disoriented**. His doctors are **overheard** planning a high-potency diet of **sugar-laden** foods for him, shaking their heads at the “**primitive**” beliefs that the **medical establishment** once held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at vegetables were ② good(← bad) for you. Now, they say, everyone knows that they cause cancer. While **intended to** be funny, that scene **captures the** ③ **dilemma** you face when **evaluating** information and research to guide your behavior. It is not enough to hear experts tell you things unless you evaluate them for yourself. On one hand, you should **exhibit** healthy **skepticism** toward ideas that ④ **conflict with** what you think you already know, or what has **been grounded** in your experience. Yet, on the other hand, you should **force** yourself to **remain** ⑤ **open to** new ideas that may actually be more **accurate** and useful.

\*protagonist 주인공 \*\* malnourished 영양실조의 \*\*\* high-potency 고효능의

요약

- 1. 영화 슬리퍼: 주인공이 수 백년의 수면 후 깨어나니 의사들이 채소는 당연히 암을 유발하니 설탕 가득 식단을 먹이자고 얘기함.
- 2→ 정보를 평가할 때 전문가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평가해야
- 3.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엔 건강한 의심을 하는 한편,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어야 함!

Shean.T's

1. 변형: 어휘. 영화 예시도 흥미롭고, 그 후 서술도 평가원이 좋아하는 내용에, 단어 사용도 좋다. 특히 2번의 경우, 유치원생 단어인 'bad'라 쉬이 넘어갈 수 있는데, 어휘 문제는 어휘 자체보다 '이해(논리)'를 본다는 걸 명심. 2번은 앞뒤로 21세기와 미래의 믿음이 반대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 좋다. 또, 내가 잘 아는데, 2번이 틀린 거 같지만 왠지 너무 앞이고 단어도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3,4,5에서 시간을 결국 많이 쏟는 효과도 준다는 점에서 준킬러로 좋은 문제다 😊

5번: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판단할 때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하며(skeptical),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있어 (open) 한다는 지문. 지문의 서두에 '영화' 예시를 드는 것도 수능영어스럽다. 2018학년도 수능영어 31번 연계 빈칸도 Apocalypse Now라는 영화 지문이었다는 TMI.

2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Why must we keep **insisting** that education is **primarily** academic **in nature**? Why is there a **hierarchical structure** of education that places academia at the top and the arts at the bottom? Learning **takes** many **forms**. Children do not all learn in the same way. You cannot seat them all behind desks in a classroom, **dictate information** to them and expect them to **absorb** all of it like a sponge. Some will do well learning in this way. A great deal will not. The **latter** of these children prefer to learn with their bodies, with their hearts and with their imaginations. They are the dancers, the runners, the singers, the actors, and the writers. They are absolutely wonderful people who give so much joy and happiness to others, yet we do not value them as we should. Instead, we reprimand them for not (빈칸 **fitting in with** the other mob(→crowd).)

\* reprimand 질책하다 \*\* mob 무리, 군중

요약

- 1. Problem: 학문은 교육의 계층 위에, 다른 예술은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경향. 학문을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도 있음
- 2. However, 후자의 아이들은 다른 다양한 걸 더 잘할 뿐.
- 3. Yet,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잘 못 어울린다고 혼내기나 함

Shean.T's

- 1. 변형: 빈칸.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하며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배워야 한다는 지문. 빈칸에는 잘못된 we의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다른 군중과 들어맞는 것'이 어울리겠다. 빈칸 바로 앞에 not도 조심! 답은 2번!
- 2. 셀티도 100% 동의하는 부분.

22번: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지문. 배움(learning)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academic) 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배움이 있음을 역설. 허나, 현재 우리는 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 의식이 좋은 지문. 이 글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수능을 통한 학문적인 배움을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대학 가서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배움을 통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능특강 영어 8강 7번 어법

2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Companies that **inspire**, companies that **command trust and loyalty over the long term** are the ones that make us feel we're **accomplishing** something bigger than just saving a dollar. (C That feeling of **alliance** with something bigger is the reason we keep wearing the jersey of our hometown sports team even though they have not **made it to** the playoffs for ten years. It's why some of us will always buy products from a certain brand over other brands, even if the brand isn't always the most **affordable** choice.) (B Whether we like to admit it or not, we are not entirely **rational** beings. If we were, no one would ever fall in love and no one would ever start a business. **Faced with an overwhelming** chance of failure, no rational person would ever take either of th ose risks.) (A But we do. Every day. Because how we feel about something or someone is more powerful than what we think about it or them.)

요약

1. 좋은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이상을 제공하는 회사
2. 이런 '같이 한다'는 느낌이 바로 한화를 계속 응원하고 아이폰을 계속 사는 이유
3. 우리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기에 사랑도, 사업도, 한화를 응원하는 무모한 짓도 하는 것!

Shean.T's

변형: 순서. 내용도, 흘러가는 논리도, 쓰는 단어도 무난히 평가원스러운 좋은 지문, 변형. 특히나 B에서 A로 넘어갈 때 do 동사로 take risks를 받아준다는 점이 킬링 포인트! 답은 5번!

28번: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지, 그 비합리적 감정 측면을 고려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있겠고, 그러니까 한화도 열심히(선티는 대전 사람) 그리고 리버풀도 열심히 응원하는 이유가 아닐까?

33.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Our tendency to **overlook** habit can be explained by one aspect of habit itself: the way in which **familiarity** and **repetition dull** our senses. Marcel Proust describes habit as a ‘heavy curtain’ which ‘**conceals** from us almost the whole universe, and **prevents us from** knowing ourselves.’ (C Not only this: habit ‘**cuts off** from things which we have **witnessed** a number of times the root of profound impression and of thought which gives them their real meaning.’ Proust realized that an artist has to **draw back**, or tear open, this curtain of habit, so that the most familiar features of our world become visible, meaningful, and cause for wonder.) (A But this is also the philosopher’s task. Although it is often said — quoting Plato or Aristotle — that philosophy begins with wonder, the wondering state of mind is only reached by first penetrating the heavy curtain of habit.) (B So habit is a **uniquely** philosophical issue, and it is also an important and profound feature of ordinary life. A few European philosophers have **gone so far as to** claim, like many teachers in the Buddhist tradition, that habit provides ‘an answer to the problem of the self’, that our **continuing identity** through time and change is produced by the tenacity of habit.) If this is true — and perhaps even if it is not quite true — then habit’s **ambiguity and uncertainty** belong to the mystery of human selfhood. The question of habit may be **inseparable from** our hardest, deepest, most **insistent** question: who are we? who am I?

\* penetrate 뚫고 들어가다, 관통하다 \*\* tenacity 완강함

요약

- 1. Problem: 익숙함에 젖어 습관을 간과.  
Solution: 우리는 이 습관의 커튼을 걷어 경이로움을 목격해야 함.
- 2. But 마찬가지로 철학자도 습관의 커튼을 걷어야 경이로움을 통해 철학 가능
- 3. 습관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철학적인 문제. ‘난 누구인가’

Shean.T’s

변형: 순서.내용도 장문 2문제에 순서 변형이라는 점도 좋은 친구. 마지막 4줄 정도는 나온다면 빠질 것. 구조를 보자면 주어진 글에서 ‘습관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C에서 또 다른 문제 및 해결책 제시. A에서 이 문제, 해결이 ‘또한’ 철학자의 할 일. B에서 부연하며 마무리! 답은 4번.

33번: 습관을 두꺼운 커튼에 비유하여, 이 두꺼운 커튼을 찢혀 열어야 함을 역설하는 지문. 그리고 이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철학’의 영역이라 설명함으로써 소재의 가치가 급상승한다. 2문제 장문을 변형한 순서라는 점도, 수능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 수능특강 영어

### Test1 24, 25번 장문

#### 3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문

The mind has a **remarkable facility** for **categorizing** new experiences into learned patterns largely shared within a culture. (B This process **transforms** the new **into** the familiar and allows us to make sense of the new sounds and images we encounter every day. So, no matter how musically open-minded we try to be, our experiences can lead us to expect music to exhibit certain **common elements** in certain contexts. ) (C For example, a person growing up in the United States is **inclined to** expect harmony as a **standard musical trait**. Harmony, several notes occurring at the same time to form a chord, is found in virtually everything we hear on the radio and in music videos, film scores, classical music concerts, and church choirs.) (A But this musical element, at least in the familiar chords of the West, is a European **invention**. Thus, we may find music without harmony strangely thin and find ourselves missing what's not there instead of listening to what is there — to other **dimensions** of sound and to nuances of **melodic variation** and pitch, for instance.) Furthermore, sound is not the only dimension that shapes our musical expectations. We also understand musical experiences through their place in our social lives, through their context. Much of the music making that we hear in Western culture comes from professionals who are paid to entertain. At a party, few nonprofessionals would **feel comfortable** singing a song for others. But in many areas of traditional Africa, where not singing is like not talking, everybody sings as a natural **social function**.

## 요약

1. 인간의 머리는 새로운 경험을 익숙한 패턴으로 분류 잘 함  
→ 음악도 특정 맥락에서 공통의 요소를 가질 거라 예측
2. ex. 서양권에서는 항상 음악에 화음이 있기 때문에 화음이 없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
3. + 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장소)도 중요.  
ex. 서양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자연스럽다.

## Shean.T's

변형: 순서. 두 문제 장문을 잘라 에센스에 추가한 문제. 이 문제는 소재도 좋지만, 순서 문제 자체에 있어서도, (A)의 this element가 (B) 마지막의 common elements를 받는 게 아님을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harmony라는 '단수'를 받는다는 것. 답은 3번!

36번: 33번과 마찬가지로 2문제 장문을 변형한 순서이기에 수능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알고 있는 익숙한 패턴을 통해 이해함을 설명하는, 소위 '스키마'를 설명하는 지문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 예시로서 음악의 '화음(harmony)'를 가져온 것도 아주 수능영어적으로 적절한 전개라고 할 수 있겠다.

Test2 17번 빈칸

6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In school, students **rarely** learn to view **disagreements** among scientists as a natural part of the **progress** of science; most textbooks are written as if science is a set of truths to be ① memorized. Teachers, especially in America, **are under enormous pressure** to cover a large number of **unrelated** science topics each year to prepare their students for **accountability tests**, which generally measure students' ability to recall facts. When **breadth** is ② emphasized over depth, there simply is not time to discuss how the scientific ideas came to be. There is ③ **barely** time to help students **grasp** the meaning of the ideas themselves. On the rare occasions when students **are exposed to** historical ideas about science, those ideas tend to be **dismissed** with ④ minimal(← active) discussion of why they were **replaced**, or why scientists held them in the first place. Students **are left with** the ⑤ impression that scientists held some silly ideas in the past, but now they have them all figured out, and today's scientific theories are true.

\* accountability test 책무성 평가, 학생 성적 책임 평가

요약

- 1. P: 학생들이 과학을 암기 과목으로 보고 과목의 불화를 중요하게 못 봄
- 2. But 깊이보다 너비가 강조되면 학생들이 과학의 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없음
- 3. → 학생들은 과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는 못 보고, 그냥 과거에는 어리석었는데 지금은 진실을 알았구나, 정도로 생각

Shean.T's

변형: 어휘. 난이도는 있으나 결국 글을 관통하는 핵심 논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평가원y하다. 바로 학생들이 과학의 깊이(B=meaning, historical ideas, why)는 보지 못하고 넓게만(A=memorize, facts) 보는 게 '문제'라는 것. 2, 3번은 그러한 문제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 4번 문장 역시 B가 제시되었을 때 B가 dismiss(일축) 된다는 얘기인데, why(B)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문 단어인 'minimal'로 바뀌어야 한다. 답은 4번!

62번: 과학 교육에 있어 의미가 깊은 지문. 과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토론 (discuss), 의견이 다름에 따른 논쟁 (disagreement) 등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과학을 그저 암기할 것(memorize)으로만 배우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잘 드러남. 특히나 암기를 너비(breadth), 토론과 논쟁을 깊이(depth)로 비유해 표현한 것이 화룡점정.

5강 4번 어법

6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The idea that innovation is **linked with meeting the needs** of social groups means that the problems innovative people seek to solve **are** at least partly **socially determined**. Where there is no **social awareness** that a problem exists, there may be no **drive** to produce solutions and thus no innovation. A simple example is the area of the design of everyday objects — tools, for example. A tool may be **awkward to use** and inefficient, or possibly even dangerous — a hammer is a good example. However, it may be so familiar to so many people that they have **become accustomed to** its disadvantages and may be able to use it very effectively, **despite** the disadvantages and **inconvenience**. They may even **be incapable of** imagining that a hammer could be different. In this case, there is no **social pressure** to introduce **effective novelty** and, **in a sense**, no problem, no matter how bad the design may be, because (빈칸 society has decided there is no problem).

- ① society has decided there is no problem (O)
- ② the needs to be improved have been met (반)
- ③ a better tool will be produced in the future (반)
- ④ social bias has tricked people into using hammers (off)
- ⑤ people do not have drive to use a hammer anymore (off)

요약

- 1. 혁신은 사회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사회적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를 위한 해결책, 혁신도 없음.
- 2. ex. 망치, 되게 단점이 많은데 사람들이 쓰다 보니 익숙해져서 단점이 문제인지 인식도 못 하고 아주 잘 사용함.
- 3. → 새로운 기능이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없음.

Shean.T's

**변형:** 빈칸. 어렵지는 않은 친구이나 좋아서, 31번에서 마주할 법한 친구다. 애초에 사회적으로 망치가 문제라는 인식이 없으니, 망치가 별로여도 사람들이 잘 사용한다. 그대로 1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64번:** 어떤 현상이 문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회'이기에, 사회가 문제 의식이 없으면 이를 해결할 동기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지문. 특히나 이번 9평을 포함한 수능영어에서 이 '사회'의 역할은 항상 중요한 화두.

##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 Test2 38번 문장삽입

10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문

There are **a number of** ways in which technology can be used to ① protect social network users from **disclosure** or privacy threats or **violations**. More ② drastic technical solutions involve **disabling** or banning social media/ social networking. For example, some schools and workplaces place **explicit restrictions** or in some cases a complete ban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they are disabled at the IT level so that students or employees cannot access these sites. The problem with this solution is that the benefits of using these sites are also ③ lost. Additionally, while this may **prevent** use of these sites during school or work hours, it has no impact on what is done after hours. The **context collapse** that occurs in an online environment ④ blurs(← clarifies) the line between people's professional and personal lives such that online information exchanges that occur outside of school or work hours impact people's lives at school or work. Therefore, ⑤ **employing** these strategies is not necessarily effective in **minimizing** the potential risks overall. [3점]

\* **drastic** 철저한, 격렬한

## 요약

1. 사생활 침해를 막는 극단적 해결책: SNS 사용을 학교, 직장에서 아예 금지
2. → Problem: SNS 이점이 사라짐 + 학교, 퇴근 후에는 노영향
3. + 요즘에는 근무 외 시간 SNS도 업무의 연장이라 효과 X

## Shean.T's

변형: 어휘. 답은 4번. SNS의 부작용을 막으려고 이를 아예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오히려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글이다. 4번의 경우 학교, 직장 시간 외 발생한 소위 '카톡'이 실제 학교, 직장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므로, 사람들의 직업 (professional)과 개인적(personal) 삶의 경계를 분명하게(clarify) 하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blur) 한다.

109번: SNS의 문제가 크다고 해서 이를 극단적(drastic)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SNS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지문. 특히나 지문 뒤쪽에서 SNS 로인해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의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관건. 2018학년도 35번 흐름 문제 또한 SNS 지문이었다는 TMI.

수능완성 4강 1번 제목

1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The world is quite **eager to** give you a set of standards, for which you can be imaginative, if you let it. The world will tell you what is unrealistic, far-fetched, **impracticable**, not very **sensible**, and impossible. Unfortunately, many of us allow these **restrictions** to be placed upon our imagination. When we accept limiting beliefs, they become our **boundaries**; we will not imagine beyond what we perceive is a limit. While you are an imaginative being, when you imagine your potential, consider ideas, or **contemplate** changes that you wish to make, thoughts that fit within your beliefs are what receive your attention. Ideas that seem unbelievable, you ignore. Consequently, your imagination is (빈칸 **bound**) to some degree **by** your beliefs, although you **occasionally** permit preposterous thoughts, such as **daydreaming** of an ideal life or **fantasizing** about the perfect spouse, for entertainment value.

\* far-fetched 억지스러운 \*\* preposterous 터무니없는

요약

1. 세상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그 기준을 자꾸 주입하려 함
2. Problem: 이러한 기준이 나의 상상력의 한계를 설정함
3. →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 상상력이 제한됨

Shean.T's

1. 변형: 빈칸. 답은 1번. 세상의 기준이 나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믿음을 형성해서 상상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는 것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상상력이 '구속, 제한'된다는 bound 가 답. 사실 이 문제는 쉽기도 쉬운 게, 지문이 '문제' 즉 P 지문이구나 파악만 해도 선지를 보면 P 선지는 1번밖에 없다! 제발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 지문이 문제의식인지 아닌지부터 알자.

2. 오답:

- ② exercised: 발휘되는 (반대)    ③ liberated: 자유롭게 되는 (반대)
- ④ enhanced: 강화되는 (반대)    ⑤ complemented: 보완되는 (반대)

114번: 학생들에게 세상이 주입하는 한계에 구속되지(bound) 말고, 더 기발하고 더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발휘 할 것을 촉구하는 교육적인 지문. 그 문제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12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Suppose we know that Paula **suffers from** an acute **phobia**. If we reason that Paula is afraid either of snakes or spiders, and then establish that she is not afraid of snakes, we will conclude that Paula is afraid of spiders. However, our conclusion is reasonable only if Paula's fear really does concern either snakes or spiders. If we know only that Paula has a phobia, then the fact that she's not afraid of snakes **is entirely consistent with her being afraid of heights, water, dogs or the number thirteen**. More generally, when we are presented with a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some phenomenon, and are then persuaded that all **but** one of those explanations are unsatisfactory, we should **pause** to reflect. Before conceding that the remaining explanation is the correct one, consider whether (빈칸 **other plausible options** are being ignored or **overlooked**.) The fallacy of false choice misleads when we're insufficiently **attentive to** an important **hidden assumption**, that the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exhaust** the sensible alternatives.

\* acute 극심한 \*\* concede 인정하다 \*\*\* fallacy 오류

요약

- 1. ex. P의 공포증이 뱀이나 거미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한 경우에만, 뱀은 안 무섭다고 하면 거미를 무서워하는구나 할 수 있는 것
- 2. 즉 선택지가 있고, 그중 하나 빼고는 조건 충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놓친 선택지가 있나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함
- 3. 이것이 잘못된 선택의 오류: 안 보이는 가정에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는 선택지가 가능한 대안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음.

Shean.T's

1. 변형: 빈칸. 답은 3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문의 소재, 센스가 축이 와서 별을 두 개 줌.

- 요약대로 이해만 하면 빈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즉, 내가 생각한 후보 선택지 외에도, '다른' 대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라는 것. 그걸 무시하면 문제가 되겠지.

- ① 이 하나의 유일한 설명이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off)
- ② 포기한 설명들이 여전히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지  
(매력 오답. 포기한 설명들 말고 그 '외' 대안들을 말하는 것)
- ④ 결론을 정당화하는 이유들이 상호 동의된 것인지 (off)
- ⑤ 대안의 수가 유효한 결론이 될 만큼 충분한지 (off)

122번: 글의 서두를 예시로 시작하며 뒤쪽에서 일반적인 언어로 정리해주는 구조가 참 수능스러운 지문. '사고'를 통해 이 지문의 두 케이스를 이해하는 게 관건이다. 즉,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정답 선택지가 하나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정답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내가 놓친, 숨겨진(hidden)것은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는 지문. 지문의 뒤 쪽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 꼭 챙겨두도록 하자.